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막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



강 론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한 표징

찬미예수님~!!!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명지휘자인 토스카니니(1867~1957)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지휘자가 아니었고, 첼로 연주자였는데, 불행하게도 그는 아주 심한 근시여서 앞에 놓인 악보조차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악단에서 첼로 연주를 할 때마다 항상 악보를 미리 외워서 연주회에 나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연주회 직전에 갑자기 지휘자가 공석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악단에서는 지휘자를 대신할 사람을 바쁘게 찾았습니다. 악단을 지휘하기 위해선 연주할 곡을 전부 악보 없이 외우고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오케스트라의 단원 중에 곡을 전부 암기하여 외우고 있던 사람은 오직 토스카니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임시 지휘자로 발탁되어 지휘봉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19세였는데, 바로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노력하며 준비된 사람에게 는 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교회 전례력 상으로 마지막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 그 날과 그 시간, 곧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표징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해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날과 그 시간은 하느님 아버지만이 아시

고, 아무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일까요? 오늘 복음 환호송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우리는 그 날과 그 시간,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을 대비하여 그 때를 아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하는 표징은 그 날과 그 시간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날과 그 시간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즉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집중하여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사느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최후의 심판 때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34-36.40)

우리가 그 날과 그 시간에 대한 표징을 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가장 작은 이들, 가난한 이들, 도움을 필요한 이들로 그들이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전례력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시기에 우리 모두 각자 삶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가난한 이들을 통해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이들을 만나 아주 큰 사랑은 못하더라도 눈을 맞추고 따뜻이 안아주며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할 때,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고 만나 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 그 날과 그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하며 세상 창조 때부터 우리를 위해 준비된 하느님 나라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창 본당 보좌 손대혁 루치오 신부



전례

입당 전 안내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연중 제33주일이며 세계 가난한 이의 날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떨치며 오실 때, 주님이 선택한 이들을 모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보살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뽑힌 이들 안에 속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며, 이 전례에 참례합니다.

입당성가 : 41번 ‘형제에게 베푸는 것’

본기도

† 주 하느님, 저희를 도와주시어, 언제나 모든 선의 근원이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제1독서 : 다니엘 예언서 12장 1절-3절

안 내 : 다니엘 예언자는, 재앙의 때가 올 것인데 그때에 책에 쓰인 이들은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고 전합니다.

목 상 : 우리가 재앙과 고난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 피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지켜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 당신의 자비로 우리 영혼을 죽음의 고통에 버려두지도 당신께 충실한 이를 수난으로부터 고통 받게 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화 답 송 : ◎ 주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제2독서 : 히브리서 10장 11절-14절. 18절

안 내 :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의 예물로, 거룩해지는 이들을 영구히 완전하게 해 주셨다고 전합니다.

목 상 :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시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지는 이들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야 합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너희는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 알렐루야.

복 음 : 마르코 복음 13장 24절-32절

강 론 : ‘그 날과그 시간에 대한 표징’(1-2쪽)

예물준비성가 : 219번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213번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 할 때’

영성체성가 : 183번 ‘구원을 위한 희생’, 175번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영성체 후 묵상

내가 살아야하는 이유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통해
기쁨과 평화와 외로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맞이하게 되는 죽음도
주님과의 통교가 이루어지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화가 지속된다면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체로 내 안에 오신
주님과 일치하며
그분의 파동을 내 안에 간직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의 일치를 이룹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446번 ‘우리는 주의 사랑을’

※ 공소사목 성금

당포공소	50,000원
정규석	50,000원
이명복	5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4,860,000원** 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

■ 교구주보 『가톨릭 안동』 창간

- 2019년 1월 6일부터 「가톨릭 안동」 주보가 발간됩니다. 아울러 공소사목은 폐간 되며 개인 배송은 하지 않습니다.
- 문의 : 사목국 054-858-3114

■ 교구장 사목방문 일정 안내

- 11월 18일(연중 제33주일) 용상동 본당

■ 열린성경강좌 8

- 일시 : 12월 10일(월) 19:30 ~ 21:30
- 장소 : 교구청 1층 강당
- 참가비 : 1인 3천원

■ 예비신학생 11월 모임

- 일시 : 11월 25일(주일) 14:00
- 장소 : 농은수련원 성직자 묘지
- 준비물 : 미사준비, 묵주

■ 공소봉사자연수

- 일시 : 12월 7일(금) ~ 8일(토)
- 장소 : 농은수련원
- 회비 : 1인 25,000원
- 신청마감 : 11월 23일(목)까지

■ 꾸르실료 월례미사

- 일시 : 11월 19일(월) 20:00
- 장소 : 송현동 성당

■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 과정 : 신·구약 성경입문(2년)
- 문의 : 02)944-0819~24/0840~2(이러닝)

■ 농민회 선종회원, 지도신부 합동위령미사

- 일시 : 11월 21일(수) 14:00
- 장소 : 농은수련원
- 접수 및 문의 : 가톨릭농민회 054-855-0127

■ 바오로딸 성서주간 특별할인

- 성경 관련 바오로딸 도서 140여종 10% 할인
- 기간 : 11월 24일(토)~12월 1일(토)
- 문의 : 안동 바오로딸 서원(054-859-6040)

■ 11월 교구 기도회

- 일시 : 11월 26일(월) 20:30
- 장소 : 예천 성당
- 강사 : 신호원 프란치스코

■ 레지오마리아에 평의회 간부 간담회

- 일시 : 12월 2일(일) 09:30 ~ 17:00
- 장소 : 농은수련원 강당동
- 문의 : 장주현 프란치스코 010-8851-4467

■ 청년연합회 합동미사 및 총회

- 일시 : 12월 9일(주일) 16:00 ~ 20:00
미사 16:30
- 장소 : 상주 남성동 성당
- 준비물 : 미사준비, 활동보고 및 활동예정 준비
- 신청 : 12월 3일(월)까지 사목국으로

■ 갈전성당 성전건립기금 고춧가루 판매

- 생산지 가격 하락으로 20% 할인 판매
- 영양 토마스 고춧가루 가격
-보통맛 1kg 30,000원/매운맛 1kg 31,000원
- 주문 및 상담 : 정 카타리나 010-3813-4405
- 계좌번호 : 농협 301-0214-6392-11
(재)천주교 안동교구 유지재단

■ 교구주보 ‘가톨릭안동’ 광고주 모집

- 교구주보에 광고를 원하시는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 광고료 : 1회 3만원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받음)
- 타교구 및 수도권 알림 : 1줄당 5천원
- 게재 제한 : 교회 이미지에 맞지 않는 경우
- 문의 : 사목국 054-858-3114

■ 2019년 전례 꽃꽂이 모임

- 일시 : 2019년 1월 5일(토) 10:30
- 장소 : 교구청 1층 대강당
- 대상 : 본당 꽃꽂이 담당, 전례꽃꽂이에 관심 있는 분

■ 2019년 대구가톨릭대학교 대신학교 합격자

- 손지호 사도요한(용상동 본당)
- 김정수 그레고리오(송현동 본당)
- 이민우 테오필로(봉화 본당)

<교구설정 5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교구민들이 안동교회사연구소의 「안동교회사연구소 자료집 7 - 간추린 【안동교구 年譜】: 1726-현재」(2014년)를 통해 지난 교구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새로운 50년을 열심히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료집의 내용을 연재합니다.>

[1] 여명기에서 조선교구까지 : 1726-1910

◆1866년

▶ 3월 16일 칼레 신부가 새벽 2시 무렵 문경의 박 상근(마티아) 집에 도착하여 이틀 동안 골방에서 은신(隱身)하다.

▶ 3월 17일(토) 칼레 신부가 저녁 10시경 담배를 피우던 중 기침 소리를 내어 다른 사람이 방문을 열어 보고 쳐다보다가 돌아가므로 걱정을 하다. 자정 무렵 신부는 박 마티아에게 집을 챙겨 줄 것과 근처 피신장소를 상의하다.

▶ 3월 18일(일) 칼레 신부가 새벽 무렵 체포하러 포졸이 온다는 소식에 박 마티아와 함께 집을 떠나다. 집을 떠난 후 포졸들이 급습을 해오다. 날이 샐 무렵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오후 문경을 마원리 한실 뒷산 계곡에서 칼레(姜)신부가 박상근(마티아)을 역지로 되돌려 보내다.

○ 오후 3시경 한실 마을 뒤 산꼭대기에 도착하여 잠시 쉬 후 마을로 내려갔으나 포졸을 가장한 도둑에게 붙들려 여자 신자 전 바르바라의 도움으로 귀머거리 행세를 하여 붙잡히지 않다. 행동이 수상하고 포승(捕繩)줄이 없어 증명서를 보자고 하여 도둑을 쫓다.

▶ 3월 19일 칼레 신부가 함창현(咸昌縣) 문산(지금의 사별면 퇴강리) 외교인 촌에서 한실로 온 이(李) 요한과 함께 밤에 25km 떨어진 문산(文山)으로 출발하다.

▶ 3월 20일(화) 칼레 신부와 이(李) 요한이 50리 길을 걸어 문산에 도착하여 이(李) 요한의 집 벽장에서 열흘 동안 숨어 지내다.

▶ 3월 21일 저녁 때 충주와 문경 두 읍의 포졸 9명이 한실을 급습하다.

○ 한실의 첫 마을에서 전교회장 김 아우구스티노 노인과 김 안드레아와 여신자(女信者) 몇 명이 붙잡히고 책, 상본(像本) 묵주(黙珠)를 빼앗아 김아우구스티노 전교회장만 데리고 문경 읍으로 가다.

▶ 3월 29일(성 수요일과 성목요일 사이의 밤) 유(柳) 토마라는 한실 교우가 찾아와 교우들이 보기 원한다 하여 칼레(Nicolas Adolphe Calais 姜)신부가 밤에 한실로 출발 했는데 중간에 쉬는 중 유 토마로부터 포졸이 한실을 급습하여 김(金)안드레아와 교우 부인이 문경현에 붙잡혀 갔다가 풀려났다는 소식을 듣다.

▶ 3월 30일(음력 2월 14일, 성금요일) 칼레 신부가 한실 교우(教友)들에게 고해성사(告解聖事)를 주다.

▶ 봄 경상도 상주 청리 진리 사람 송 아기가 상주 포교(捕校)에게 잡히다.

▶ 봄 문경 한실로 피난 갔던 서태순(베드로)이 한실에서 포졸들에게 잡혀 상주진영 옥에 갇혔다가 12월 18~19일(음력) 순교하다.

▶ 4월 1일 칼레 신부가 부활축일(復活祝日)을 한실의 골방에서 지내다.

▶ **4월 5일(목)** 칼레 신부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자다가 유(柳) 토마와 함께 한실에서 25~30km(60~70리) 거리의 작은 교우촌인 자치골로 가기 위해 오솔길을 따라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어 경상도와 충청도의 경계지점인 두 번째 산봉우리에 올라 휴식하다가 충청도로 들어서다.

▶ **4월 6일** 칼레 신부가 유 토마와 같이 새벽 무렵 닭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걷던 중 연풍 읍내(한실에서 10km거리)와 외곽을 비켜가는 삼거리 주막을 지나던 중 처마 밑에 대기하고 있던 경포(京捕) 2명과 연풍 포졸 3명에게 붙들려 따라가다 다행히 550냥이 든 전대 끈이 풀려 돈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돈에 정신이 팔린 사이 달아났는데 유 토마는 연풍현 옥에 투옥되다.

▶ **4월 7일** 칼레 신부가 아침 무렵 한실로 되돌아가는 길을 찾아 헤매다가 맨발로 산꼭대기에 오른 후 날이 밝았다. 산을 내려가다가 바위굴이 있어서 나뭇가지로 입구를 막고 들어갔으나 도움이 되지 않아 다시 산을 내려가다. 점심 무렵 개울물과 풀뿌리로 허기를 채우며 가다가 외교인(外敎人) 마을을 만나 한실로 가는 길을 물었지만 대답이 시원치 않아 다시 골짜기로 들어서다. 저녁 무렵 한실에서 20리가량 떨어진 낮익은 골짜기를 만나 반시간 가량을 내려가자 해가 저서 산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오두막을 만나 주인을 찾았지만 외교인 집이라 달아나다. 산허리를 돌아가다가 비를 피하는 세 사람을 보고 다가가자 그들이 달아나다.

▶ **4월 8일(일)** 칼레 신부가 새벽 무렵 집 3채가 있는 동네에 이르러 탈진한 상태에서 교우들을 만나 환대(歡待)받다. 낮에 외교인(外敎人)이 찾아와 새벽에 누가 오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오지 않았다고 하자 밤에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나돌다.

▶ **4월 12일** 유(柳) 토마스가 연풍 옥(獄)에 갇힌 것에 대해 부인의 걱정과 포졸들이 한실을 덮칠 가능성 때문에 칼레 신부가 동이 뜨기 전 요기(療飢)를 한 후, 상처투성이의 몸을 지계에 실려 15분 거리의 바위굴에서 4월 26일까지 15일 동안 지내다.

▶ **4월 27일** 칼레 신부가 숨어있던 곳에서 아침 10시 경 문경읍에서 약초를 캐러 온 사람에게 발견되어 산 위의 바위에 올라 그들이 돌아간 것을 확인 한 뒤 점심을 먹었는데 이 일로 교우들이 더욱 겁을 먹다.

▶ **4월 28일(土)** 칼레 신부가 숨을 다른 곳을 찾아 한실에서 연풍 가는 방향의 숲속을 다니다가 연풍에서 한실로 올 때 길을 잃었던 장소인 목적지에서 오두막집을 짓는 두 사람을 만나다. 저녁 무렵 문경 한실에서 반시간 거리에서 어둡기 시작하여 일행 중 3명은 한실로 자러가고 전교회장 김 아우그스티노와 은신처를 잘 아는 교우(김 프란치스코(63세)로 추정)와 한실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깊숙한 굴에 도착하여 저녁밥을 지어먹고 건초와 나뭇잎을 굶어모아 바닥에 깔고 잠을 청하다. 8일 동안 이곳에서 지내다.

▶ **4월 29일(일)** 문경 가는 한실 부근에서 칼레신부가 장마로 굴이 무너질 염려와 습기 때문에 굴 밖에서 지내며 밤에는 한실에서 찾아온 교우들로부터 소문과 사건들을 듣다.

▶ **5월 5일** 칼레 신부가 4월 4일부터 비 때문에 한실 부근의 굴속으로 들어갔지만 김 프란치스코가 산중(山中)생활에 염증을 느껴 한실로 돌아가자고 하다. 안동 박골 태생 김 계호(季浩, 토마, 兩班)가 서양 병선(兵船) 사정으로 대원군에게 편지를 했다가 김원익(바울로)과 이 서방과 함께 잡혀 새남터에서 순교하다.

-다음에 계속-



살림터 이야기

내가 꿈꾸는 인생

정규석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팬스레 가슴이 설레었다. 이 나이에 쓸데없는 객기를 부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왕 마음먹은 일이니 즐겁게 시작해보리라 다짐을 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강의실 문을 두드렸다.

배움의 길에 동참한 사람들은 25살 청년에서부터 60대까지 다양했다. 젊은 그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었고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는 사람들이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패기가 부러웠다.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활력을 얻고 도움이 될 것 같았다.

나의 공식적인 공부는 오래전에 끝났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더 이상의 공부는 없었다. 직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직무교육을 받았고 시험도 봤지만 학교 공부와는 달랐다. 승진과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는 과정이다 보니 많이 여유로웠고 부담이 덜했다.

학생 때는 언제 이 공부가 끝나나 싶었다. 좋아하는 것을 할 시간도 부족한데 너무 많은 과목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나를 힘들게 했다. 살아가는데 무슨 도움이 될까 회의가 들었다. 하루빨리 사회에 나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고 싶었다.

수 십 년을 공부와는 담을 쌓고 살았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배움의 필요성을 느끼기는 했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당장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고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그렇게 허둥거리다 정년을 맞았다.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무력감 때문이었다. 쌓아놓은 경력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다. 이대로 나이만 들어간다는 생각에 조급해졌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마음까지도 늙어버릴 것 같았다. 내게 있는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학습과정을 찾게 되었고 용기를 내어 배움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학해무애(學海無涯)라는 말이 있다. 배움의 길은 끝이 없으니 계속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미다. 학교를 졸업하면 더 이상의 공부는 필요 없을 줄 알았다. 그동안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살아보니 정말 배움의 길은 끝이 없는 것 같다. 어찌면 사는 것 자체가 끝없는 배움의 길인 지도 모르겠다.

배운다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의 배움’으로 시작해서 ‘안에서 밖으로의 배움’으로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통해 그들이 옳은지를 확인하면서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 간다. 안과 밖의 조화가 이뤄져야 완성되는 것이기에 진정한 배움의 길은 멀고도 어려운 것이리라.

내가 시작한 교육과정은 어렵지 않다.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지만 이해가 쉽다. 1주일에 한 두 번씩의 강의니 시간도 여유롭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지금의 내 형편에서는 다행한 일이다. 걱정은 되지만 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배움의 길에 들어서 보니 학생 때와는 느낌이 다르다.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어 고맙고, 활기찬 대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어 즐겁고, 캠퍼스의 낭만을 되살릴 수 있어 기쁘다. 몸도 마음도 다시 젊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학교 가는 날이 기다려진다. 나이를 먹을수록 정해놓은 목표가 있고, 갈 곳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지금의 과정이 끝나면 한 단계 더 높은 과정에 도전해 보려한다.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전문가가 되고 싶은 것이다. 내 뜻대로 배움의 길이 마무리되면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다. 그동안의 경험과 새로운 지식을 더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 내가 꿈꾸는 인생후반기의 청사진이다.